

| 18일 Market Index    |                    |  |  |
|---------------------|--------------------|--|--|
| 코스피                 | 코스닥                |  |  |
| 3994.51<br>(-61.90) | 901.33<br>(-9.74)  |  |  |
| 금리(1년)              | 환율(원/달러)           |  |  |
| 2.967<br>(-0.029)   | 1479.10<br>(-0.70) |  |  |

# 현대차그룹, R&D·제조 내실 다져… ‘SDV 체계전환’ 가속

## 2025 정기 임원인사

R&D 본부장에 만프레드 하러  
제조부문장 정준철 부사장 승진  
사장 승진 4명 등 총 219명 인사

현대자동차그룹이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기업 전환과 연구개발(R&D), 제조 부문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는다.

현대차그룹은 18일 2025년 정기 임원 인사에서 R&D본부장에 만프레드 하러 사장을 임명하는 등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 핵심 분야의 리더십을 교체했다.

만프레드 하러 사장은 2024년 현대차그룹에 합류한 이후 R&D본부 차량개발담당 부사장으로서 제품개발 전반을 아우르는 기술 전문성을 바탕으로 차량의 기본성능 향상을 주도했다. 그는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모든 유관 부문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SDV 기술 확보에 나선다. 송창현 전 첨단차플랫폼(AVP) 본부장 후임은 빠른 시일 내 선임할 계획이다.

하드웨어 영역에서의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 중심 공장(SDF)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제조부문장 정준철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한다.

정준철 사장은 완성차 생산기술을 담당하는 제조솔루션본부와 수익성과 공



급망 관리의 핵심인 구매본부를 총괄하고 있으며, 이번 승진을 통해 소프트웨어 중심의 미래 생산체계 구축과 로보틱스 등 그룹의 차세대 생산체계 구축에 주력할 전망이다.

현대차는 국내공장을 총괄하는 국내 생산담당 겸 최고안전보건책임자를 새롭게 임명했다. 제조기술 엔지니어링에 정통한 현대생기센터 최영일 전무를 부사장으로 승진·임명했다.

기아에서는 북미권역본부장 윤승규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했다. 그는 북미 지역 시장지배력을 강화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그룹의 성과중심 기조를 이어가는 것이다.

계열사에서는 현대제철이 새로운 대

표이사 체제를 출범시켰고, 현대카드와 현대커머셜 대표이사는 각각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루이지애나 제철소 프로젝트 등을 이끌 현대제철 사장에는 이보룡 부사장이 승진·임명된다. 서강현 현 현대제철 사장은 그룹 기획조정담당으로 이동한다. 안정적 위기 관리 역량을 보인 현대카드 조창현 대표와 현대커머셜 전시우 대표는 나란히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장재훈 부회장은 현대차그룹 담당 부회장으로서 그룹의 전방위적인 미래 사업 및 기술 확보를 위한 그룹 차원의 시너지 제고와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 민첩한 실행을 이끌어 간다.

사장 승진 4명 이외에도 부사장 14

명, 전무 25명, 상무 신규선임 176명 등 총 219명의 승진을 포함한 정기 임원인사도 이뤄졌다.

전체 239명의 승진을 실시했던 작년 임원인사대비 승진자 규모는 20명이 줄어 총 219명이 승진했다.

현대차그룹은 40대 차세대 리더 발탁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 브랜드마케팅본부장 지성원(47) 전무는 40대 부사장으로 발탁됐다. 상무 신규선임 대상자 중 40대의 비율도 지난 2020년 24% 수준에서 올해 절반 가까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80년대 생 상무로는 조범수(42) 현대차 외장디자인실장과 권혜령(45) 현대건설 플랜트기술영업팀장 등 총 12명이다.

현대차그룹의 싱크 탱크 역할을 담당하는 HMG경영연구원 원장으로 미국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 경제학과 신용석 교수를 부사장으로 영입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번 임원 인사를 통해 글로벌 불확실성의 위기를 체질 개선과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 인적쇄신과 리더십 체질변화를 과감하게 추진했다”며 “SDV 경쟁에서의 압도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혁신적인 인사와 투자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 “미국과 일본 간의 엇갈리는 통화정책 국내 영향 살펴봐야”

구윤철 부총리, 시장상황 점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과 일본 간 통화정책이 엇갈리고 있는 데 대해,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살펴겠다고 말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제자리를 찾아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구 부총리는 이에 대해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구 부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이덕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국내 금융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인 가운데, 국고채 금리가 다소 하락했으나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19일 예정된 일본 중앙은행(BOJ)의 정책금리 결정과 관련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다만 미·일 간 통화정책 차별화가 향후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최근 일본 기준금리의 인상 쪽에 무게를 두는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다. 19일 실제 인상될 시 이는 이달 초 금리 인하를 단행한 미국과 다른 행보인 탓에 시장의 관심은 커지고 있다.

다만, 국내 시장참가자 다수는 일본 중앙은행의 결정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는 유관기관들과 함께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중심으로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을 24시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필요시 적기에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정부, 5년내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개 만든다

##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

유니콘·데카콘 기업 50개 육성  
벤처투자 연 40조 시대 열기로  
엔비디아 GPU 일부 전략 배분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1차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중기부

정부는 우선 엔비디아를 통해 확보할 5만장 규모의 AI GPU 중 일부를 벤처·스타트업 연구 개발, 실증을 위해 전략 배분한다. ABCDEF 등 ‘6대 전략산업’, 즉 ▲AI(인공지능) ▲Bio(바이오) ▲Contents&Culture(콘텐츠&문화) ▲Defense(방산) ▲Energy(에너지) ▲Factory(첨단 제조)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개편한다.

‘차세대 유니콘 발굴·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당 최대 1000억원 규모의

단계별 투자·보증으로 2030년까지 총 13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글로벌 4강 반열인 ‘벤처투자 연 40조 원 시대’를 위해 연금·퇴직연금 전용 국민계정을 신설해 모태펀드가 손실을 우선 부담하고 재정 출자를 확대한다. 범부처가 참여하는 모태펀드 운용위원회를 구축해 투명하게 운영하고 전략을 강화한다.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하면서 모태펀드 존속기간도 연장됐다.

벤처기업법의 목적과 정부 책무를 명확히하고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도 벤처기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지역창업 거점허브인 스타트업 파크를 확충하고 창조경제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창업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한다. 틱스(TIPS) 프로그램 선정 시 지역기업에 최대 50%를 우선 배정하고 투자요건을 완화한다.

모태펀드를 미중물로 3조5000억원

규모의 지역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일반 모태자펀드에도 지역투자 의무비율과 인센티브를 도입해 지역 친화적 벤처투자를 강화한다.

청년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매년 1000명의 예비창업자를 발굴한다. 단계별 경영으로 창업 루키 100명을 선발해 사업화와 투자유치를 적극 지원한다.

민간의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 피투자기업 업력 제한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법인의 벤처모펀드 출자 세액공제율을 늘린다.

미국 실리콘밸리를 시작으로 도쿄, 싱가포르, 런던, 뉴욕 등 주요 혁신 거점에 스타트업·벤처 캠퍼스를 구축하고 서울에는 글로벌 창업허브를 조성한다.

소셜벤처 개념을 글로벌 기준에 맞게 재정립하고 벤처기업 제도와 연계해 제도적 위상을 강화하는 등 ‘소셜벤처법’을 제정한다.

/김승호 기자 bada@

## 메트로 한줄뉴스



▲장동혁, 여성단체협의회 창립기념식서 “당에 여성 위한 문 만들 것” /사진 뉴스1  
▲조국혁신당, 직설위원회 ‘레드팀’ 위원장 위촉장 수여

▲‘공 GPT 국장’ 오류 논란 송미령 직접 해명… “질답 과정 일부 혼선”  
▲행안장관 “폭설 불편 없게” 대책 점검…초고층 건물 방문도

▲김문수, 한동훈 손잡고 “우리 당 보배, 자르면 안 돼”  
▲정원오 성동구청장, 정청래 면담…“먼길 가기 위한 준비”